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사업을 점검해 보는 토론회가 19일 열린다. 사진은 중심도시 사업의 핵심인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전경. /최현배 기자 choi@kwangju.co.kr

亞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 성과와 과제는

조성위, 오늘 토론회 열고 사업방향 재확인
유규승 건축가·안병욱 원장·박구용 교수 강연



유해로 15년째를 맞이한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조성 사업을 되돌아 보고 현재까지의 성과와 남은 과제를 조망하는 토론회가 열린다. 이번 토론회는 도시의 문화적 역량이 아시아문화중심도시사업 진행과정 속에서 어떻게 변했는지, 광주를 세계적인 문화도시로 견인하겠다는 당초 포부가 어느 정도 결실을 맺었는지 등을 살펴보는 자리다.

대통령 소속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회(위원장 최권형)가 주최하는 ‘아시아중심도시로 가는 길은 생각 포럼’이 19일 오후 2시 아시아문화전당 국제회의실에서 개최된다.

‘도시에도 영혼이 있는가?’라는 주제로 펼쳐지는 이번 포럼은 그동안의 사업 방향성을 재확인하고 앞으로의 계획을 면밀히 들여다보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번 토론회는 내년 봄까지 모두 3회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다.

이무용 전남대 문화전문대학원 교수가 사회를 맡은 이번 포럼에서는 문화전당을 설계한 유규승 건축가가 ‘빛의 숲: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건축’을 주제로 발표를 한다. 광주의 기억을 중심으로 새 공간을 만들기 위해 문화전당을 ‘빛의 숲’으로 설계한 이유와 개념을 설명하며 향

후 문화전당이 미래 광주에 어떤 의미를 부여할 지 이야기한다. 특히 지상에 우뚝 솟은 상징물(랜드마크)이 아닌 땅 밑에서 무등산을 도시의 심장에 담아내는 아시아문화전당의 비전 등과 연계해 풀어낼 계획이다.

이어 안병욱 한국학중앙연구원장은 ‘광주 공동체와 문화적 기반’을 주제로 광주 공동체와 문화적 토대 등에 대해 이야기를 할 예정이며 박구용 전남대 철학과 교수는 ‘아토포스(Atopos)의 도시 광주로 가는 길’을 주제로 광주가 아시아 문화로 소통하는 도시가 되기 위한 방안을 다양한 각도에서 모색한다. 토론회에는 황봉년 전라

도닷컴 편집장과 한운석 독일튀빙겐대 서울한국학센터장, 김학준 경희사이버대 스포츠경영학과 교수가 참여한다.

한편 지난 2004년 논의가 시작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은 광주를 아시아의 다양한 문화가 교류하고 소통하는 문화도시로 만들기 위한 국가 프로젝트다. 2023년까지 광주를 5대문화권인 문화전당교류권, 융합문화과학권, 아시아공동체문화권, 미래교육문화권, 시각미디어문화권으로 조성한다는 복안이다.

/박성현 기자 skypark@kwangju.co.kr

‘광주, 시민의 문화적 삶은 몇 시?’ 20일 문화중심도시 지원포럼 토론회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개관 4주년을 맞아 시민의 문화적 삶의 변화를 살펴보기 위한 시민토론회가 20일 오후 3시 아시아문화전당 문화정보원 대강의실 (지하 1층)에서 열린다. (사)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지원포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광주·전남기자협회가 공동 주최하는 이번 토론회의 주제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광주, 시민의 문화적 삶은 몇 시인가?’이다.

송진희 호남대 예술대학장을 좌장으로 ‘세계 문화도시 시민들의 삶’ (강윤주 경희사이버대학교 교수·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 ‘성남문화정책의 추진사례’ (박지훈 성남문화재단 차장), ‘광주생활예측 출범과 시민문화 활성화’ (이대경 (사)한국생활문화예술단체총연

합회 광주시지회 회장)를 주제로 발제와 토론이 이어진다.

그동안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개관기념 시민토론회는 문화전당 개관에 따른 성과와 과제를 중심으로 이뤄졌으나, 이번에는 국내외 사례를 바탕으로 도시의 문화에너지가 시민의 문화적 삶의 변화를 이끌고 있는가를 시민과 토론회보는 자리다.

조성지원포럼 지형원 회장은 “이번 토론회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사업이 광주 시민의 문화적 삶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부족한 점이 있다면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를 고민하고 대안을 찾는 자리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박성현 기자 skypark@kwangju.co.kr

웅장하고 가슴시린 말러 교향곡 ‘거인’

광주시향, 21일 문예회관에서 정기연주회

말러의 ‘교향곡 1번 거인’은 기존의 교향곡 형식과 규칙을 벗어나려는 대담한 시도를 보여주고 있어 서양 음악사를 바꾼 첫발자국에 비유된다. 웅장하고 대담한 오케스트라 사운드와 가슴시린 선율미, 다양한 민족음악의 사용 등 이후 말러 음악의 특징 등을 만날 수 있어 말러 입문자를 위한 추천 곡으로도 불린다.

광주에서 좀처럼 연주되지 않는 ‘말러 교향곡 1번: 거인’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된다. 광주시립교향악단(이하 광주시향) 제348회 정기연주회가 21일 오후 7시30분 광주문화예술회관 대극장에서 열린다.

광주시향 김홍재 상임지휘자가 지휘봉을 잡는 이번 공연은 모차르트의 오페라 ‘후궁으로부터의 도주’ 서곡으로 문을 연다.

이어 호르니스트 카르스텐 캐리 더핀이 모차르트의 ‘호른 협주곡 제3번 작품 447’을 협연한다. 2010년 9월 마리스 안손스가 지휘하는 바이에른 방송교향악단 호른 파트의 솔리스트로 지명돼 활동중인



김홍재 카르스텐 캐리 더핀

카르스텐 더핀은 세계적인 호르니스트 마이클 홀트젤을 사사했다.

다니엘 하딩이 이끄는 말러 챔버 오케스트라를 비롯해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슈투트가르트 국립오페라극장 오케스트라 등 세계적인 오케스트라에서 활동했으며 현재 바이로이트 음악제 오케스트라의 수석 주자를 겸하고 있다.

광주문화예술회관 홈페이지 예매. R석 3만원, S석 2만원, A석 1만원.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고차분 작 '어서오세요'

드영미술관, 마지막 청년작가전 ‘풍경’

12월 8일까지, 고차분·박성완·최나라·이태희 참여

1년간 지역 청년들을 응원하는 기획전 ‘소소한 이야기’를 꾸준히 열여온 무등산 자락 드영미술관(관장 김도영)이 마지막 전시를 열고 대장정을 마무리한다. 드영미술관은 지난 3월부터 ‘기다림’, ‘일발’, ‘일상’, ‘그리움’을 주제로 김연호·김하슬·나지수·주대희·양세미·김성결·윤운영·염기훈 등 16명의 작가를 초대했었다.

오는 12월 8일까지 열리는 마지막 전시는 ‘풍경’을 테마로 열린다. 참여작가는 고차분·박성완·최나라·이태희 작가 등 4명이다.

전시장에서 가장 먼저 만나는 고차분 작가의 작품은 ‘집’이 모티브다. 작은 집들이 웅기중기 모여 있는 모습은 편안한 풍경 연출한다. 작가는 다채로운 집의 모습에 ‘인간’을 투영하기도 하는데 각각의 집은 다양한 개성의 인간을 의미하기도 한다. 같은 소재로 작업하다 보니 화면의 여백을 살리거나 과감한 분할, 아크릴·오일·오일 파스텔 등 다양한 재료, 색감을 활용해 변화를 모색했다.

박성완 작가는 이번 전시에서 선보이는 작품은 다채롭다. 홍콩 시위, 전두환 재판, 망월동 묘역 등 생생한 역사적 현장

을 다룬 작품부터 창평의 논에서 일하는 이들의 모습, 아내와 아이의 모습을 담은 인물화 등을 내걸었다. 유화 물감을 두텁게 써 질감을 살리고 거친 붓질로 화면에 역동감을 부여하는 박 작가의 작품의 특징을 고스란히 만날 수 있는 그림들이다.

“모든 생물은 일생의 과정이 존재하고 그것에 따른 흔적을 남긴다”는 테마를 화폭에 풀어낸 이태희 작가는 다양한 형태의 나이트, 나무조각, 겹칠, 딱판 등의 질감을 한지에 탁본 방식인 프로타주 기법을 적용해 제작했다.

최나라 작가의 작품은 동화적 느낌이 물씬 풍긴다. 책박한 현대인의 삶 속에서 위로의 장소를 제공하는 집과 거리 풍경 등을 다채로운 채색으로 풀어냈다.

김도영 관장은 “내년에도 청년 작가 기획전은 계속해서 열 생각”이라며 “청년작가전과 별개로 진행되는 전시의 경우 지역 작가들 뿐 아니라 타 지역 작가들도 적극적으로 소개해 다양한 작품 세계를 소개하고 공감하는 기회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김남삼의 창작가곡 발표회 23일 호남신학대 ‘예음홀’



가을의 끝자락을 장식하는 작곡가 김남삼(사진)의 창작가곡 발표회가 오는 23일 오후 4시 호남신학대학교 ‘예음홀’에서 열린다.

300여곡의 동요를 만든 김 작곡가는 그 동안 틈틈이 작곡한 가곡을 모아 2018년 ‘거리에 비 내리듯’이란 타이틀의 가곡 음반, 작곡집을 발표했다.

공연에서는 프랑스 시인 폴 베를렌의 시에 곡을 붙인 ‘거리에 비 내리듯’과 임보선 시인의 시에 곡을 붙인 ‘가을이 오는데’를 비롯해 ‘동백꽃’, ‘대숲의 노래’, ‘별 하늘 달 같은 사람들’ 등을 선보인다.

연주자는 소프라노 서인선, 소프라노 박성경, 테너 박성철, 바리톤 송승범 등이다.

30년 넘게 동요작곡가로 활동해온 김 작곡가는 2003년 창작동요발표회를 열었다.

41년의 교직생활에서 정년퇴직한 2018년부터는 ‘송년음악회’로 창작가곡발표회를 열고 있다. 이날 음악회에서는 작곡자의 독집 음반, 작곡집이 증정된다. 전석 무료.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김미숙 하나무용단, 우리 전통 예술 세계에 알렸다

세이셸서 열린 ‘크레올 페스티벌’ 참가... 거리퍼레이드 최우수상 수상

김미숙 하나무용단(단장 김경민)이 인도양의 섬나라 세이셸 공화국(Republic Of Seychelles)에서 열린 ‘제34회 크레올 페스티벌’에 문화체육·청소년부 장관의 공식초청을 받아 한국 대표 자격으로 참가했다. 특히 몰디브 등 전 세계 29개팀이 참여한 거리퍼레이드에서는 최우수상(1위)을 수상, 한국의 미를 전 세계에 알렸다.

세이셸 청소년체육문화부가 주관하고, 국립음악공연예술원이 주최하는 크레올 페스티벌은 댄스 비엔날레와 함께 세이셸 최대의 국제 행사로 꼽히며 매년 인도양, 아프리카, 유럽 등에서 많은 예술가들이 참여해 전통 춤과 음악을 선보인다.

지난 2016년부터 한-세이셸 문화 교류 사업을 추진해온 하나무용단은 전통예술진흥재단에서 공모한 ‘2019 전통예술 해외진출지원사업’에 선정돼 항공권 등을 지원받아 이번 행사에 참여했다.

10월24일부터 30일까지 7일간 열린 행사에서 하나무용단은 3차례 공연을 통해 소고춤을 포함한 전통무용과 사물놀이 등을 펼쳤으며 소고 등 악기와 한복 등을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워크숍도 진행했다. 김미숙 교수는 페스티벌 개최식에서 세이셸 문화부로부터 세이셸과 한국의 문화교류에 힘쓴 공로로 감사장을 받았다.

하나무용단은 지난 2017년 세이셸 정부와 상호 교류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세이셸 댄스비엔날레에도 초청받아 참여했으며 세이셸 국립무용단은 그해 천안흥타령 축제에 참여해 다양한 전통무용을 선보이기도 했다.

김경민 김미숙하나무용단장은 “이번 크레올 페스티벌 참가였으로 우리 전통문화예술의 해외진출에 더욱더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벤들리관광호텔

을 한해를 마무리하는 **송년행사**는

벤들리 관광호텔과 함께!!

각종 "송년행사" 및 세미나, 가족모임(피로연, 칠순, 팔순 등)을 최고의 서비스로 모십니다.
최고의 맛과 최상의 서비스로 아름다운 추억을 선사해 드리겠습니다.

대연회장(180명), 소연회장(30명), 스카이라운지(80명) 예약 운영

예약문의 062)236-5881~2

찾아오시는 길 : 광주광역시 동구 서석로 10번길 5 (볼로동)